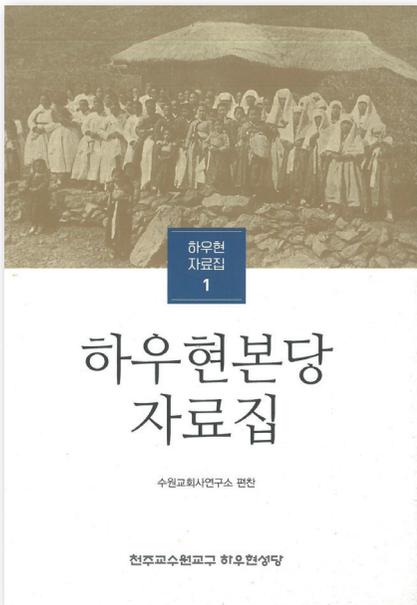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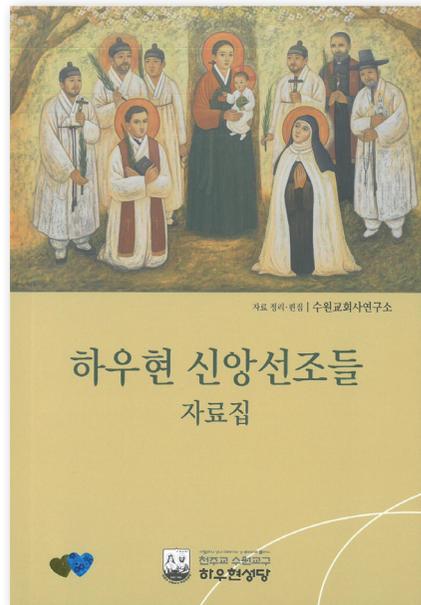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새로 정리한 ‘김기호 요한 회장 약전’ - 『하우현 신앙선조들 자료집』(2022, 하우현성당) 소개

유구한 신앙의 전통과 가진 하우현본당은 2020년 본당 설정 120주년을 계기로 본당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수원교회사연구소와 함께 하우현 자료집 2책(『하우현본당 자료집』과 『볼리의 신부 자료집』)을 2019년 7월에 간행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하우현본당에서 현양하는 신앙선조들(순교복자 한덕은 토마스, 순교자 김준원 아니체토, ‘하느님의 종’ 서태순 아우구스티노와 이조여 요셉, ‘하느님의 종’ 페랭 신부, 김기호 요한 회장)에 대한 자료와 약전을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정리·서술하여 『하우현 신앙선조들 자료집』으로 간행했습니다. 앞의 두 책이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집이라면, 뒤의 책은 본당 신자와 순례자들을 위한 길잡이 소책자입니다.



『하우현본당 자료집』(2019.7)



『하우현 신앙선조들 자료집』(2022.9)

이번에 간행한 『하우현 신앙선조들 자료집』은 제1부 하우현 신앙선조 약전, 제2부 하우현 신앙선조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앙선조들과 연관된 볼리의 신부(하우현본당의 공동 주보성인)의 약전과 관련 자료도 실려 있습니다. 하우현본당 역사의 뿌리이자 신자들의 모범이었던 선조들의 삶과 죽음,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하

우현 신앙선조들 자료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번 『상교우서』 지면을 통해 19세기 후반 평신도 지도자이자 하우현공소[본당] 설립의 주역인 김기호 회장의 약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약전은 기존의 자료와 약전[가톨릭대사전, 본당 제공 자료], 김 회장의 자서전인 『봉교자술』을 바탕으로 필자가 새롭게 정리·서술한 것입니다. 아래 약전 중 [추가 내용]은 이번에 새로 덧붙인 내용입니다.

### 김기호 요한 회장 약전 - 19세기 후반 평신도 지도자이자 하우현 공소[본당] 설립의 주역

김기호 회장은 1824년 황해도 수안군 무송동에서 출생했다. 15세 때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서당을 열어 학동들을 가르쳤다. 이후 지인의 집에서 천주교의 한역 교리서인 『성세추요(聖世綏堯)』를 얻어 보고 천주교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서울로 올라와 천주교 서적들을 깊이 공부한 후 조선대목구장이었던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에게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천주교인이 되었다. 문중의 박해를 받아 황해도 서흥(瑞興) 땅으로 옮겨가 그곳에 공소(公所)를 마련하고 전교에 힘썼다. 베르뇌 주교에 의해 관서(關西, 황해도, 평안도) 지방의 전교회장으로 임명되어 각 지역을 돌면서 교리를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했다.

1866년(병인) 천주교 박해로 인하여 가족을 피신시키고 혼자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경기 삭녕 지역에 훈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몇 년간 편안히 살았지만, 신자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



김기호 요한 회장



김기호 공적비 (1979년 건립)

1876년 블랑(Blanc, 白圭三) 신부를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제가 다시 조선에 들어오면서 천주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했다. 블랑 신부의 지시로 그를 찾아온 신자들과 함께 강원도와 경기도 산간 지역의 신자들을 방문하여 성사 준비를 시켰다. 이후 블랑 신부를 수행하여 강원도 각지를 순회했고, 신부의 지시

로 황해도 배천으로 가서 새 신부를 모실 준비를 했다.

1877년 리델(Ridel, 李福明) 주교, 두세(Doucet, 丁加彌) 신부, 그리고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가 입국했는데, 두세 신부와 로베르 신부는 배천의 김기호 회장 집으로 가서 조선 말과 풍습을 배웠다. 그해 12월 두 신부를 수행하여 황해도 구월산 공소에서 1878년 새해를 맞았는데, 리델 주교의 체포 소식이 들렸으므로 구월산 산속으로 피신했다. 주교가 중국으로 추방된 후 두세 신부와 함께 곡산 문바위로 가서 로베르 신부와 만났다. 김기호 회장이 삭녕으로 갈 때 예비신학생을 위한 학당을 마련하라는 로베르 신부의 지시에 따라 집을 장만하여 로베르 신부를 모셨고 거기서 예비신학생을 가르쳤다.

1878년 블랑 신부의 지시로 로베르 신부를 수행하여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드게트 신부의 체포 소식을 들었다. 이에 사목활동을 중단하고 피신했는데, 로베르 신부의 지시로 영혼 구제를 위한 기본 교리를 쉽게 풀이한 『구령요의(救靈要義)』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1878년 가을에 로베르 신부를 수행하여 강원도 지역의 공소 방문을 하는데, 평안도 지역의 전교를 맡으라는 블랑 신부의 편지를 받았다. 이에 김기호 회장이 서울과 황해도 평산의 공소를 거쳐 평안도 지역을 돌면서 신자들을 찾아 교리를 가르쳤다. 이후 3년간 평안도 지역을 방문하여 신자들에게 성사 준비를 시켰다.

1882년 대목구장 권한 대행인 블랑 신부가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자 김기호 회장을 불러 복사로 삼았고, 판공할 때마다 남녀 신자들의 성사 예비 공부를 맡겼다. 이 무렵 김기호 회장은 청계산 아래 하우현 지역에 속하는 광주 토구리(현재 의왕시 청계동)에 자식 식구들을 거주하게 했다.

1883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블랑 주교의 성성식에 주교를 수행하여 참석했고, 나가사키에서 조선 입국을 준비하는 선교사제 조제(Josse, 趙) 신부에게 우리말과 풍습을 가르쳤다. 모든 일정을 마친 블랑 주교와 조제 신부, 김기호 일행은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상해를 거쳐 제물포를 통해 입국했다.

1887년 블랑 주교의 지시로 푸아넬(Poisnel, 朴道行) 신부와 함께 전교회장 교육을 위해 알기 쉬운 교리 문답서인 『소원신종(溯源愼終)』을 저술했다. 또한, 김기호 회장은 주교의 지시로 『성경직해광익(聖經直解廣益)』의 번역[수정]을 맡아서 수년간 진행했다. [추가 내용 : 『성경직해광익』을 김기호 회장이 처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번역본을 다시 검토하면서 수정한 것이다. ]

1890년 블랑 주교 사망 후 제8대 조선 교구장으로 임명된 뮈텔(Mutel, 閔德孝) 주교가 1891년 조선에 입국했다. 뮈텔 주교의 지시로 김기호 회장은 주교와 같이 입국한 뉘테르트르(Dutertre, 姜) 신부에게 조선말을 가르쳤다. 이 무렵 19권의 『성경직해광익』의 번역[수정]을 완성했는데, 그해 4월경 뮈텔 주교의 허락 아래 교회 직무에서 물러나 토구리로 내려가 정착했다. [추가 내용 : 김기호가 내려올 무렵 청계산 하우현 산골짜기에 세 개의 마을이 생겼고 모두 30호의 가구가 자리 잡았다고 한다.]

1893년 하우현 공소를 방문한 왕림본당 주임 알릭스(Alix, 韓若瑟) 신부는 김기호 회장 등 공소 신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공소 강당을 건립하기로 했다. [추가 내용 : 알릭스 신부는 김기호 회장의 제안에 따라 하우현 교우촌 3곳의 가운데 지점(현재 성당 위치)을 강당 터로 정했다.] 알릭스 신부가 제공한 자금과 공소 신자들의 노력이 합해져 초가(草家) 공소 강당이 건립되었고 1894년 6월 2일에 축성식이 거행되었다.

1898년 명동성당이 준공되었는데, 김기호 회장은 이를 축하하는 천주가사인 「성당가(聖堂歌)」를 저술했다. 1900년에 하우현 공소가 왕림본당에서 분리되어 본당이 되었고, 초대 주임으로 샤펀랭(Chapelain, 蔡) 신부가 그해 9월에 부임했다.

김기호 회장은 1901년 자신의 신앙생활, 교회를 위한 헌신, 그리고 믿음의 일생을 담은 『봉교자술(奉敎自述)』을 저술했다. 1902년 11월 22일에 뫼텔 주교의 집전으로 하우현 성당 축성식을 하였다. 김 회장은 1903년 선종하여 하우현에 묻혔다.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후손들이 선산을 마련하여 이장하였다. 2021년 5월 27일 수원교구의 배려로 김기호 요한 회장이 처음 묻혔던 하우현으로 다시 모시게 되었다.



김기호 요한 회장 유해 귀환과 안장 예식 (2021.5.27)

이와 같이 새로 정리한 ‘김기호 요한 회장의 약전’을 소개했습니다. 『하우현 신앙선조들 자료집』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우현성당에 문의(031-426-8921)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1호, 9월 30일 간행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